| 국토교통부 | 보도해명자료 | |
|---|---|---|
| | 배포일시 | 2017.10.24.(화) / 총1매(본문1) |
| 담당 부서 | 항공·철도 사고조사위원회 | 담 당 자 | • 사무국장 민풍식, 팀장 박영운, 조사관 이대영<br>• ☎ (044) 201-5422, 5447, 5440 |
| 보 도 일 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

# “16년 제주공항 사고조사 결과 의혹” 보도 관련

□ ’16.1.25.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제주공항에서 착륙중 제설작업 후 활주로 내에 쌓아둔 눈더미에 엔진이 부딪힌 준사고에 대한 **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공정하게 수행**된 것으로, **부실 의혹**이 있다는 **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**

○ 폭설로 폐쇄된 공항의 운영재개 절차는 **1차적으로 공항 운영자**(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)가 제설작업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**2차적으로 감독관청**(제주지방항공청)에서 최종점검 후 양호한 경우 운영재개를 결정하게 됩니다.

□ 동 건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,

○ 제설작업을 수행한 한국공항공사가 **활주로 내에 눈더미를 쌓아두었고 3차례의 자체 확인점검을 수행**하고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감독관청에 **양호한 것으로 점검결과를 보고**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2차 최종점검을 감독관청에서 수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* 보고서에 명시하였듯이, 조사결과 감독관청의 점검이 실제로 이루진 것은 무선통신 내용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기록은 확인되지 않음

⇒ 사고원인은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행위·상태를 말하는 것으로, 활주로 근처에 쌓아둔 눈더미(제설작업 불량)가 이에 해당되며,

⇒ 기여요인은 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며, 확인점검 미흡, 작업자 교육 미흡 등이 해당됩니다.

※ 사고원인 및 기여요인에 대한 용어정의는 국제기준(ICAO 부속서13)에 근거함

□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근거한 절차·규정에 따라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뉴스1, 10.24) >

◈ 16년 제주공항 사고 조사에 국토부 책임 제대로 명시 안돼 부실 의혹

- 사고의 주요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이라는 조사결과에 반박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의혹
- 항공기 운항중지·재개 최종 책임 및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, 사고당일 운항재개 시각을 국토부가 앞당긴 사실(20시→15시)을 명시하지 않음
- 제항청의 최종점검 미흡 부분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사고의 기여요인으로 일부 담고 있으나 제항청이 실시한 활주로 최종 점검결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박영운 팀장(☎ 044-201-54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